

PART 1 예수와의 조우, 인생의 답을 얻다

1. 회의론자 : 나타나엘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 헬라인들은 우주에는 합리적인 도덕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 ‘자연 질서’를 로고스(Logos)라고 칭했다. 헬라인에게 삶의 의미는 곧 세상을 관찰하여 그 질서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순응하여 잘사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태초에 말씀(로고스)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요한1 :1-3, 14)

- 많은 현대 철학자와는 달리 요한은 헬라 철학자들처럼 삶 자체에 목적(telos)이 있음을 인정했다. 모든 인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자유롭게 잘 살기 위한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요한이 선언했듯이 세상은 그저 임의의 맹목적인 힘의 산물이 아니며, 역사도 ‘음향과 분노로 가득찬 어느 어리석은 사람의 무의미한 이야기’가 아니다.
- 성경은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나 추상적 합리체계가 아니라 한 인격체라고 주장한다. 이 때 인격체는 이 땅을 사셨던 한 인간을 가르킨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잘사는 삶이란 주로 철학적 명상과 지적 추구에 있지 않다. 그 삶은 우리가 만나서 관계를 맺는 한 인격체의 손에 달려 있다.
- 세례자 요한의 제자 안드레아와 빌립이 있었다. 빌립은 친구 나타나엘을 예수께 데려왔다.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니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니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나타나엘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었고 조금 편협하기도 했다. 당시 예루살렘 출신

은 모두 갈릴리 출신을 우습게 보았다. 이런 태도는 인류의 본성이다. 나타나엘도 갈릴리 출신이었다.

- 우리는 타인의 눈에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정체감을 정중하고 탄탄한 논증이 아닌 조롱과 멸시를 통해 얻으려고 할 때가 많다.
- 오늘날 기독교를 나타나엘이 나사렛을 보듯 하는 사람이 많다. 기독교는 '나사렛'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조롱하기 좋아한다.
-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위와 같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권하고 싶다.

첫째, 이런 멸시는 언제나 해롭다. 모든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완전히 말살하며, 관계의 깨어지고 어그러짐을 준다. 특정한 개념이나 사람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 좋은 관계에 더 해로운 일은 없다.

둘째, 당신은 기독교를 멸시함으로써 자신의 많은 핵심 가치관의 살아 있는 원뿌리를 잘라낸다.

- 뤽 페리가 지적했듯이 모든 인간은 재능이나 재물이나 인종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하느님의 인격적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로고스가 인격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지하는 인권의 철학은 결코 확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 기독교에서 유래한 오늘날 당연히 되는 또 하나의 시각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이 팽배한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혁신을 몰고 왔다. 인간의 존엄성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사랑의 절대성, 빈민과 고아의 구제 등을 강조하고 받아들인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창세기 속 전통 들여다보기

- 하느님께서는 늘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 동기간 중 어린 쪽을 택하셨다. 가인 대신 아벨,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열한 명의 형들을 대신해 요셉을 택하셨다. 매번 하느님께서 세상이 예상하고 상을 베푸는 대상인 장자를 택하지 않으셨다. 비유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늘 나사렛 출신을 택하신 것이다.
- 세상이 보기에 축복받고 사랑받는 여자보다 멸시받는 여자를 택하신 것이다. 예컨대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택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하느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 유일무이한 성경의 메시지이자 핵심은 불멸의 초월자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까지 약해지셨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 뉘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였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철저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의 행위이다. 우리를 매료하는 기독교 윤리의 혁명적 개념들에 이보다 탄탄한 근거와 역동적인 동기란 있을 수 없다.

-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 체계와 구별되는 차이점의 정수는 바로 ‘복음’이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 타종교와 철학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기독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셨다고 말한다. 타 종교와 철학은 중요한 의문들의 답을 찾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한다. 수많은 사상 체계는 성공한 강자를 위해 존재한다. 힘과 행위를 충분히 쌓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들의 신념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독교는 강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모든 사람,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기독교는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구주가 필요함을, 즉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볼 줄 아는 이들의 것이다.
- 기독교가 비범한 이유는 ”신을 찾으려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하느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독교가 세상에 기여해 온 완전히 다르고 특별한 진리다.
나머지 모든 혁명적 개념 - 약자와 빈민을 돌보고, 권력과 성공 대신 사랑과 섬김을 위하여 살고, 원수까지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등 - 은 복음에서 파생되는 결과다. 복음이란 우리의 근본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 당신이 가진 삶의 소신의 근원은 인정하면서 즉, 기독교의 가르침 중 한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일관성을 더해 주는 기독교의 다른 부분은 받아들여 하지 않는가? 나타나엘처럼 되지 말라. 당신의 교만과 편견을 조심하라. 경멸하며 일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자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독이 되지만 근본 질문을 던지는 이 부분에서는 특히 더하다.
- 요컨대 나타나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교만’과 ‘멀시’의 문제다. 그러나 그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영적 욕구가 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냐“라던 그가 불과 몇 분 만에 ”랍비여,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다. 예수께서 그분의 정체에 대해 믿을 만한 증거를 조금 내보이시자 나타나엘은 즉각 충성의 대상을 바꾼다.

지금 우리의 씨름은 무엇인가?

- 하느님이 없는 한 오든(미국 시인)은 내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정당하다고 말할 권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하느님이 없다면 우리가 소중히

- 여기는 모든 가치는 가공의 산물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가공의 산물이
- 아니라고-인종 학살이 정말 절대 악이라고 확신했기에 그는 하느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달았다.
 - 회의론자 제자 나타나엘처럼 오돈도 자기 시대의 ‘옳은 부류’가 기독교를 비웃는다는 사실에 얽매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지적인 의문 - 특히 도덕 가치의 기초에 대한 의문 - 에 답이 없었기에 기꺼이 예수님을 새로 보았다. 그렇게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을 열자 그도 나타나엘과 똑같은 체험을 했다. 믿음이 싹튼 것이다.
 -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특정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없다고 믿으면서 당신이 특정인에 대해 ”저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는다. 행실이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나 표리부동이다.

만약 예수를 만난다면

- 나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만한 탄탄한 근거가 있음을 당신에게 보여 줄 수 있다.
- 예수님은 나타나엘을 만나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우선 그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하신다. 나타나엘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평은 아마 좋게 표현해 주신 말씀일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가 거슬려 보였을 수 있다. 거침이 없고 늘 타인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분은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시면서도 온유하게 대하신다. 나타나엘은 그분의 통찰(어찌면 인자하신 마음)에 놀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도 잘 아십니까“라고 묻는다.
-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나타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도 자신을 좋게 보셨다는 게 나타나엘로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놀라웠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소이다?라고 고백한다.
-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부드럽게 꾸짖으신다. ”처음에는 잔뜩 회의적이더니 이제 덩석 나를 받아들이느냐, 하지만 내가 정말 누구인지는 너에게 말도 꺼내지 않았느니라. 어제까지도 혐오하며 피하던 내가 오늘 감정 체험을 했으니 이는 너를 초자연적으로 아는 사람을 만났음으로다. 하지만 서두르지말고 너무 감동하지 말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정말 모르느니라.
-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했다.
- 그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어찌 감히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 보라. 이제부터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라고 하셨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다. ”나를 믿을 근거를 찾고자 했으니 잘하였도다. 네가 선의로 구하니 내가 근거를 주리라.“ 예수님은 인간의 사고 활동을 반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나타나엘에게 좀더 생각하라고 독려하신다.

- 당신이 기독교에 회의적이라면 균형이 필요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한편으로 회의론을 영원히 고수하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된다. 반대로 깊은 정서적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개념에 서둘러 행복한다면 결국 아무런 의문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주관적 욕구가 채워진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에 귀의해서는 부족하다. 기독교는 소비상품이 아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기독교에 귀의해야 한다.
- 예수께서 나타나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눈여겨보았는가? 그분은 ”네가 그 이유로 나를 믿느냐. 진실로 네게 이로노니 하느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셨다. 당신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온다면 나타나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을 것이다. ‘커다란 의문의 답은 아마 얻지 못하겠지만 그분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내 외로움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갈 때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다. 자신의 욕구가 과연 채워질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견지한다.
-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늘 당신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신다. 나타나엘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리라던 그분의 말씀은 구약의 한 사건에서 인용한 것이다. 야곱이 꿈속에서 보니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천사는 왕이신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 나타나엘에게 주신 대답에서 예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사실상 이런 말씀과 같다. ”저런, 내가 메시아로 보이느냐. 필시 내가 말을 타고 로마의 압제 세력을 전복할 줄로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인간 조건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악과 사망을 정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느니라. 그보다 훨씬 큰 일을 보여 주리라. 네게 말하노니 나는 세계의 축이라. 내가 하늘과 땅의 층간에 구멍을 뚫었노라. 인간이 된 나의 성육신과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하느님의 임재 안으로 곧장 인도할 수 있느니라.“
- 대부분의 구도자가 영적 탐색에 나설 때 실망을 우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찾던 것보다 늘 무한히 더 크시다. 늘, 우리의 기대를 능가하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신다. 그러니 당신도 편견을 버리고 나타나엘과 함께 와서 보라. 와서 보고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대화하라. 이때 우선순위와 기준이 바뀔 각오를 하고 오라. 당신이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게 무엇이든 나사렛에서 그보다 훨씬 큰 무엇인가를 만날 것이다.

2.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기독교와 소외층이 있는 현 세상,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부자와 외부자

- 두 인물(우물가 여인과 니고데모)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이 두 만남을 거론할 수는 없다. 죄와 죄인이라는 단어에 문화적 부하가 많이 걸려 있음을 나도 안다.
- 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면 훨씬 근본적이고 광범위하다. 그 단어를 기독교인은 결코 무기로 쓸 수 없다. 그렇게 사용하는 본인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이다. 성경대로면 아무도 죄인이라는 판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 두 이야기의 요지다.

예수가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

-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당신에게 알려 주고 싶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원수였기 때문이다. 수백년전 유대인의 태반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때 본토에 남았던 일부 유대인은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통혼한 결과 사실상 새 부족인 사마리아인이 생겨났다. 그들은 유대교와 가나안 종교를 적당히 섞어 혼합 종교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열등인종이자 이단자로 취급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깜짝 놀랐다. 이에 더하여 유대인 남자가 인종을 불문하고 낮선 여자에게 공공연히 말을 거는 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 당대의 모든 인습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은 이 여자와 일체 상종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다. 그것이 얼마나 과감한 시도인지 알겠는가? 예수님은 그녀와 소통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선을 넘으셨다. 그래서 그녀는 깜짝 놀랐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놀라야 한다.

- 이 만남의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듯이 대하면서도 잘못을 지적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화법은 부드럽고도 절묘하다. 그분은 우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 결국 예수께서 이 소외층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다. "네 몸에 물만큼이나 네 영혼에 기본이고 꼭 필요한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 없이는 너는 완전히 잃어진 존재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준다고 말씀하신다. "내 물을 받으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예수님은 그 어떤 외부 조건(연애, 직업, 정치, 대의명분)도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영혼의 깊은 만족과 충족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외부 조건도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생수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얼굴에 끼었을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주어 네 안에 심을 수 있어, 외부 환경이나 사건과 무관하게 네 존재의 응어리 속에 불가해한 절대적 만족을 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외에는 채울 수 없다

- 우리는 대부분 영혼의 갈증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와 불안의 의욕과 희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그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평생 자신의 깊은 영적 갈증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막상 꿈을 이루었거나 목표를 이룬 소수의 사람은 고대하던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만족이 없음에 충격에 빠진다.
-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은 "상도 만히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다."
-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이외의 모든 것이 실망을 안겨 준다고 단언하신다.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이 당신을 노예로 삼는다. 목표로 하는 것을 막상 성취해도 그것은 당신이 기대하던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 "당신이 숭배(세속적인 대상을)하는 것이 당신을 산 채로 삼켜 버릴 것이다.---
- ----- 미국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
-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숭배하지 않고, 네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면, 영적 갈증을 온갖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채우려 하지 않는다면, 해답이 바깥을 스쳐갈 게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네가 무엇을 숭배하든 결국 그것은 너를 버릴 것이야.'
-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본질을 알려면 머니저 네가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너는 그것을 남자들에게서 얻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자에 대한 욕구가 너를 산 채로 삼키고 있다면 앞으로도 늘 똑같은 것이다.

-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의 통찰력과 자신의 삶을 알고 계심에 놀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반응한다. 그러면서 당대의 첨예한 신학 문제 하나를 제기한다. "우리는 이쪽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니 누가 옳으니이까." 21-24절의 한 문단에 실린 예수님의 명답을 요약하면 이렇다. "물리적 성전이 없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오리라."
- 여인은 감정이 북받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라고 되받는다.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신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요한 4, 26)

예수와 니고데모의 만남

바리사이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내가 세상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소외층을 대하실 때와는 다른 은유를 쓰신다. 그의 삶에 만족이 없음을 지적하신 게 아니라("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니라")교만한 자기만족을 지적하신다("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그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나고 물으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거나 기여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생명은 값없는 선물이다. 새로 태어남도 마찬가지다. 구원은 은혜다. 어떤 도덕적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어내거나 구원받을 공로를 쌓을 수 없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 도덕성과 신앙을 흠잡을 데 없는 니고데모와 길거리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나 라스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잃어버린 존재다. 양쪽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쪽 다 거듭나야 한다. 양쪽 다 영원한 영적 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가 그들을 산 채로 삼킬 것이다. 게다가 그 생명은 값없는 선물이라야 한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답

-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사람보다 깊이아시기 때문이다. 죄란 하느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다. 마치 자신의 착한

삶과 도덕적 공로 때문에 하느님이 복 주시고 당신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식의행세가 그렇다. 이는 매우 교활한 방법이다. 종교인들은 늘 하느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신의 선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구원자가 된다.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간음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교만과 독선과 불안과 시기와 멸시가 잔뜩 차올라 주변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세상살이가 비참해진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하다

-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양쪽 다 죄인이라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하며 그 생수를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느님께 자신을 받아 달라고 하고, 회심해야 한다.
-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의 모든 것은 신에게서 왔다. 하느님이 계신다면 당신은 훌륭한 도덕 생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느님께 드릴 의무가 있다. 그분은 마땅히 당신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 당신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유죄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 해법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류의 구원과 가짜 구주를 그만 의지해야 한다. 직업이나 배우자나 돈이나 도덕성에 위에 삶을 세운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당신이 세운 구주(우상)는 본래 구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상으로 삼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순간 자기혐오와 수치심으로 우리를 벌할 뿐이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배신에도 용서를 베푸는 구주는 예수님뿐이다. 그 무엇도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줄 수 없다.
-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주적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영적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그 일을 즐거이 하셨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이유를 알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들부터 예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예제하게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는 회의론자와 신자와 내부자와 소외층과 그 중간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3. 슬퍼하는 자매들 : 마르다와 마리아 “신이신 예수가 인간의 슬픔을 알겠는가”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예수님과 나자로와 마리아와 마르타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던 것 같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였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 예수님의 마리아와 마르타를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시는 그분의 깊은 지혜와 성품과 그분의 정체에 대한 깊은 진리까지 엿볼 수 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타를 각각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심을 엿볼 수 있다.
- 마르타를 만나셨을 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신으로 자처하신 것이다. 하느님만이 능히 생명을 주시고 취하실 수 있다. 보다시피 그분은 그저 "내가 특별히 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나자로를 소생시킬 수 있느니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모든 생명을 부여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이 내게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복음서 전체에 걸쳐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밝히신다. 사실 명시적 진술만 아니라 간접적 언급까지 합하면 자신의 정체가 하느님이시라는 그분의 주장은 거의 모든 장에 나온다.
- 예수님께서서는 간접적으로 신성을 주장하여 동시대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또 다른 예는 친히 죄를 사하신다는 일관된 선언이다.
-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한 8, 58). 또 그분은 마르타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진리가 그분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곧 진리라고 주장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 14,6).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느님이시다"(요한 20, 28)부르자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예배를 받으신다.

세 가지 딜레마

- 첫째 반론은 "신약기사의 역사적 신빙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은 고사하고 그분이 존재했는지조차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분 사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생겨나지 않는가?
- 예수님의 존재와 생애에 대한 증거는 성경 이외의 역사문헌에서도 발견된다. 게다가 많은 석학이 설득력 있게 논증했듯이 복음서는 전설적 내용으로 가득한 구전이 아니라 목격자 진술에 기초한 구술 역사다. 예수님이 신으로 자처하셨다는 증거 또한 복음서 기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증거에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지 않았던 시기나 누런 논쟁은 전무했다. 예컨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20년 만에 기록된 바울의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송하는 초기의 기독교 찬송가 - 그 서신 자체보다 오래되었을 것이다. - 가 나온다(빌 2, 5~11) 이는 예수님의 정체는 신이라는 믿음이 그분 사후의 먼 훗날에 생겨난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자 처음부터 기독교 공동체의 근간이었다는 뜻이다.
- 1세기의 유대인은 하느님을 초월적으로 높게 보아서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발음조차 하지 않았다. 하느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격렬한 비난을 부를 일이었다. 이는 첫째, 지도자를 아무리 높게 추앙할지라도 유대인 남녀의 머릿속에 신인(神人, God-man)의 개념이 있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둘째,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신이라고 설득할 사람은 없었다는 뜻이다. 성공 가능성이 전무함을 본인도 알았을 테고, 실제로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 1세기 메시아로 자처한 유대인들이 몇몇 더 있었고 그중 다수는 추종자들도 있었으나 신으로 숭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 두 번째 반론도 가능하다.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 진실했더라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 스스로 미혹되어 신이라고 행세한 인물들이 역사속에 있었으나 그런 주장을 자신들 이외에까지 능히 믿게 만든 경우는 없었다. 왜 그러한가? 인간의 통상적 성격 -이기심, 조급함, 무절제한 분노, 교만, 부정직, 잔인함등-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남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설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대의 깊은 문화적 신학적 회의론까지 더해지면, 유대인에게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설득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말 그게 사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고서는 말이다.
- 역사학자들이 입증했듯이 예수님 사후에 유대교의 일신론에 충실하면서도 그분을 참 하느님으로 예배한 무리의 수는 급증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

기에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셨을까? 어떻게 극소수의 불안정한 사람들이 아닌 그 이상에게 자신이 우주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심을 설득하셨을까? 그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저항을 뛰어 넘으셨을까? 답은 그분이 신약 전반에 기술된 비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인간이셨다는 것이다. 그런 그분의 놀라운 모습을 이번 본문에서 볼 수 있다.

- 예수님은 하느님이면서 또한 절대적이고 전적인 인간이시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 생명의 주인이신 초월적 창조주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 죽음의 참혹함을 전부 느끼셨다고 믿는 종교는 기독교 밖에 없다.
-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베푸신 것은 진리의 사역이었다. “나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정체가 신이신 주님은 그녀에게 별을 가리켜 보이실 만큼 높은 분이다. 잠시 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것은 눈물의 사역이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눈물의 사역이었다. 인간이시기에 주님은 온전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녀의 슬픔 속에 들어가 함께 우셨다.
- 항상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만큼 기질이나 인내심이나 통찰력을 다 갖춘 사람은 인간 중에 아무도 없다. 공감해 주어야 할 때도 잘못부터 지적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성향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워야 할 때 강하시거나 강해야 할 때 부드러우신 적이 없다. 이는 단지 그분이 완전하고 놀라우신 상담자여서만이 아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며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하느님이시다.
- 예수님의 압도적 아름다움은 그분이 하느님인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이 역설에서 비롯된다. 예수님은 온유하되 약하지 않으시고, 강하되 모질지 않으시며, 겸손하되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시다. 부동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전혀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초지일관하시지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예수님은 힘과 민감함이 공존한다.
-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있다.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 왜 절대 권력자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셨을까?

예수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닌 못이었다

- 예수님은 죽음에 맞서 격노하신다. 그분은 “죽음에 익숙해지라. 누구나 다 죽는 게 세상 이치니 체념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간 최대의 악몽 -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의 상실-을 똑바로 쳐다보며 분개하신다. 악과 고난에 노하시고, 하느님이신 자신에게는 노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 우선 악과 죽음이 하느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뜻이다. 처음 하느님

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병과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도 알고 있듯이 세상이 잘못된 이유는 다분히 인간의 심령 때문이다. 인생의 불행은 다분히 우리의 이기심, 교만, 잔인함, 분노, 압제, 전쟁, 폭력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느님의 진노의 검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처단하셔야 한다면 우리 중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곳에 악과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의 손에는 못이 들려 있었다. 그분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당하셨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보다 위험한 인물임을 깨닫는다. 나자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했다.
-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몫의 심판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분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시어 살해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 C.S 루이스는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우리와 신의 관계는 주택의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역설했다. 1층 주민은 계단만 올라가면 2층 주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단지 하늘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즉 땅과 하늘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는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에 더 가깝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셰익스피어가 희곡 속에 본인에 대해 써 넣은 만큼만 알 수 있다. 햄릿은 모든 방식을 동원해도 자신의 저자를 알 수 없다. 루이스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지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면 그분이 우리 삶과 세상 속에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써 넣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하느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다.
-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들여다보니 하느님을 등지고 세상을 파괴하는 인간이 보였다. 그래서 한없이 마음이 아프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스스로 자초한 덧과 불행에서 헤어나려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 써 넣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神人, God-man)으로 말구유에 태어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는지를 보라.

4. **혼인잔치** : 예수의 어머니

“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답인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다

고대 전통 문화는 개인보다 가정과 공동체를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 삶의 의미는 개

인의 성취에 있지 않고 좋은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데 있었다. 결혼의 목적도 주로 두 사람의 행복보다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축제의 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다. 고대 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사실상 파티는 끝이 난 것이다. 이는 단지 예절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대참사였다. 명예와 수치 중심의 전통 문화에서는 특히 더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말하였다. ---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하고 말씀하셨다. ---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사람들에게 공적 생활 시작을 포도주의 기적으로 자신의 참 정체를 내보이신 것이다. 하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노출하셨다는 것이 흥미롭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맛아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당할 거야, 옳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따르는 이들도 장차 희생을 겪을 것이야. 그러나 이 모두는 수단이며, 목적은 축제의 기쁨이라! 이것은 다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모든 악과 사망과 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 숲이 포도주에 취하여 춤추고 노래했다는 디오니소스의 모든 전설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것은 역사의 종말에 임할 영원한 잔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믿는 이들은 지금부터 기쁨의 강물을 속에 품고 그 기쁨의 첫맛을 보리라. 그 맛은 한없이 고달프고 메마른 시대에 생수처럼 깊은 위안과 새 힘을 주리니 결국 나는 그것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이것이 나의 첫 표징이니라.”

기쁨의 시작이 아닌 고난의 시작

- 성경 전체가 말해 주듯이 예수께서 결국 하실 일이 본질상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취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천국이 내려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씻길 것이다. 요컨대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그분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

-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잔치의 주인이니 결국 기쁨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동이자 첫 기적은 바로 만민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니라”라고 말씀

하신다. 그분이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는지는 이제 알았으리라! 그런데 왜 그것을 주셔야만 했을까? 이 기적의 또 다른 세부 사항에 주목해 보자. 그분은 결례를 범한 신혼부부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가?

- 대부분의 경우 마음속의 죄와 이기심으로 인해 공공연히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섬기지 못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모든 것을 빚졌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실 때 정결 예식용 향아리를 쓰셨다. 그분의 생각은 이렇다. ‘울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축제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고 죄책과 수치로부터 인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기쁨을 주러 내가 세상에 왔나이다.. 그러나 어머니여,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하나이다.
- 종말에 모든 잔치를 종결시킬 잔치가 있다. 그냥 막연한 잔치가 아니라 혼인 잔치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와 그분의 친밀하고 영원한 연합을 마침내 경축하는 자리이다. 역사는 그렇게 종결된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백성인 우리는 신부가 되어 마침내 그분과 연합할 것이다. 이 땅에서 결혼한 부부의 황홀한 사랑도 미래의 그 우주적 실재에 비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와 메아리에 불과하다.
-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무한히 기쁘고도 극도로 섬뜩할 자신의 예식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풀어 적어보자. “어머니여, 내 백성이 내 품에 안기려면 내가 죽어야 하나이다. 내 백성이 기쁨과 축제와 복의 잔을 마시려면 내가 정의와 형벌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나이다.

진정한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

- 당신에게 호소한다. 대신 희생한다는 개념이 불쾌한가? 본질상 잘못된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남을 잘되게 하려고 한없이 소중한 것마저 기꺼이 포기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다. 당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보다 더 가슴 뭉클한 기쁨은 없다.
-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분은 모두에게 대속과 생명을 주러 오셨고, 방법은 자신의 희생이었다. 당신을 죄책에서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배우자로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당신을 사랑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희생이다.

5. 최초의 그리스도인 : 막달라 마리아

“정말 부활이 가능한가”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인 기독교 신앙

- 사실 많은 회의론자가 한번쯤 펴는 주장대로라면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바라는 대로 신을 믿는다. 그러나 좀처럼 거론되지 않지만, 신을 믿지 않을 엄청난 정서적, 심리적 이유도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 토머스 네이글은 “나는 신의 증거를 찾는데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평하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뿐이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알았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깊은 편견이 층층이 쌓여 있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룩한 신이라는 개념에 저항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당신도 객관성에 근접할 수 없다.
- 우선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라 회의론을 회의하라. 왜 그것이 필요할까? 완전한 객관성이 당신에게 없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저 수용해야 할 일련의 이성적 철학적 원리가 아니라 맺어야 할 인격적 관계다.
-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관심과 의욕은 있는데 동기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생각과 마음부터 바르게 고쳐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느님의 개입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본문의 가르침을 보지 못한다.
- 당신도 인격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 예수께 도움을 청하라. 사실 예수님을 믿어 보려고 고심 중이라면 그분이 이미 당신을 돕고 계신다는 징후일 수 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원할 수조차 없다.
- 믿음이 합리적 과정만은 아니며 예수님과의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임을 방금 막 보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훌쩍 뛰어넘지만 결코 이성에게 목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뜻이다. 본문의 사건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증거에 속한다.

부활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이들

- N.T.라이트의 <하느님 아들의 부활>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은 모두 육체의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 헬라인은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악함과 악의 근원으로 보고 정신을 강함과 선의 근원으로 보았다. 그래서 구원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일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몸의 부활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일을 하려는 신이 누가 있겠는가?
-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은 하느님이 될 수 없다고 배웠고, 그들이 가진 창조주에 대한 생각은 초월적이었다. 1세기의 유대인에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분의 잦은 예고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그들에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서 믿기는 고사하고 바랄 수조차 없었다.
-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려면 당신에

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그 증거가 무엇이든 간에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그런 게 주어졌다는 합리적 결론이 가능하다. 그들을 납득시켜 믿음에 이르게 한 증거라면 당신을 납득시키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 요즘 세상은 믿음이 논리와 증거에 반비례한다고 가르친다. 사실이 확인될수록 믿음의 필요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게 아니다.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한껏 끌어올려 준다.

최초의 목격자는 누구인가?

- 성경 전문가와 역사가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듯이 그 시대에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다. 가부장 문화에서 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니 자기네 종교나 운동을 선전하려고 부활 기사를 지어낼 사람이라면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울 리 만무하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기사에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모두 여자다. 기사에 여자가 등장한다는 자체-여자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남자기록자들이 여자를 넣은 이유-를 역사적으로 개연성 있게 설명할 길은 하나뿐이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틀림없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자가 그렇게 말할 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이성온 믿음의 중요한 요소다.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소생하여 일어나셨다면 수의가 다 찢어지거나 형클어졌을 거야. 친구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수의를 입힌 채로 모셔 가지 도대체 왜 벌거벗겨 그분의 몸을 욕되게 하는걸까? 반면에 적들이 훔쳐갔다면 도대체 왜 수의를 벗겨 저렇게 가지런히 두고 간 걸까? 그는 골똘히 생각하며 증거를 찾고 있다. 가능한 가설을 모두 시험해 본다.
- 물론 믿음은 합리적이기만 하지는 않다. 이성 하나만을 통해서도 진정한 믿음에까지 이를 수 없다. 그럼에도 믿음이란 이성 이하가 아니다. 이성 없이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왜 그럴까? 성숙한 믿음은 전인적 행위라서 의지와 감정 못지 않게 지성도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기독교를 믿되 재미있고 실용적이고 당신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 실용성도 없고 누구에게도 맞지않는다 라고 말한다. 앞날의 고난과 의문을 헤쳐 나가려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맞고 재미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진리임을 믿어야 한다.
- 요컨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이다.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 모든 면에서 믿음은 은혜로 충만

하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

-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믿는다.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듯이 구원이란 내 공로를 하느님께 드려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거둬난 열린 문으로 낙원에 와 있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깨닫게 되는 정체성

- 본문에서는 감격에 겨운 그녀가 “주님을 한번은 잃었으나 다시는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듯 필사적으로 그분께 매달리는 모습이 쉽게 그려진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이런 것이다. “나는 곧 올라갈 터이니 내게 너무 꼭 매달릴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 나도 많은 주석가의 말에 동의한다. 그분의 말씀은 “마리아야, 내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거든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영을 보내리니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밤낮 나의 임재와 평안과 사랑을 알 수 있느니라”라는 뜻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진정한 믿음은 당신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분과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를 갖게 만든다.